

2026년 산업부 예산 9조 4,342억 원 확정

- 2025년 본예산(7조 9,430억 원) 대비 1조 4,912억 원(18.8%) 증가
-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M.AX 예산 1.1조원으로 2배 확대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 4,34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조 4,912억 원(18.8%)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 7,869억 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 원 증액되고, 12개 사업, 7,046억 원 감액되었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당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 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되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내년 예산이 1.1조 원으로 올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뒷받침한다. 아울러,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에 올해 보다 34.2% 늘어난 1.7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1.2조 원으로 18.0% 확대하였다. 최근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 삼아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다.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 올해 보다 8.1% 늘어난 1.9조 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0.9조원으로 18.4% 확대하였다. 지역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에 4,099억 원을 투입해 AX 전환 등을 지원하여 고도화시키는 한편, RE100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5520)
		담당자	사무관	조기훈	(044-203-5516)
			주무관	장선화	(044-203-5517)
			주무관	김종호	(044-203-5518)

참고1

산업통상부 2026년도 예산 세부 편성 현황

※ 정부 조직개편('25.10)에 따른 결과 반영

□ '26년 회계·기금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5년(A)	'26년(B)	증감	
			(B-A)	비율
합 계	79,430	94,342	14,912	18.8%
◇ 예 산	78,010	93,142	15,132	19.4%
일반회계	38,620	51,351	12,731	33.0%
에특회계	8,818	8,139	679	△7.7%
소특회계	18,228	19,549	1,321	7.2%
지특회계	12,287	14,038	1,751	14.3%
고특회계	57	65	8	14.6%
◇ 기 금	1,421	1,201	△220	△15.5%
산촉기금	1,421	1,201	△220	△15.5%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상기표에서 제외

* 소수점 반올림으로 소계, 합계 차이 발생 가능

□ '26년 비R&D/R&D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5년(A)	'26년(B)	증감	
			증감액(B-A)	증감률(%)
비R&D	35,223	42,187	6,964	19.8%
R&D	44,207	52,155	7,948	18.0%

1. 산업 전반의 AI확산

(‘25) 5,651억원 → (‘26) 1조 947억원(+5,296억원, +93.7%)

□ 제조업 위기 돌파를 위해 **제조현장과 제품에 인공지능 적극 활용**

○ **(자율제조) AI 팩토리** 등 제조업에서의 AI 활용을 위한 예산 확대

- * AI 팩토리 관련 예산 : (‘25) 1,582억원 → (‘26) 2,200억원
- *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 (‘25 추경) 128억원 → (‘26) 128억원
- * **신규**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AI에이전트기술개발(R&D) : (‘26) 60억원

○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지원** 및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 * 피지컬 AI 관련 예산 : (‘25) 2,149억원 → (‘26) 3,756억원
- * **신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산업부) : (‘26) 1,300억원

○ **(AI 반도체) 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등 제품 자체에서 AI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지원**

- * **신규**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 (‘26) 1,666억원

2.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25) 1조 2,945억원 → (‘26) 1조 7,372억원(+4,427억원, +34.2%)

□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핵심 기술개발에 중점**

○ **(반도체) 국산 소부장 기업 제품·설비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산 확대**

- *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 (‘25) 1억원 → (‘26) 1,157억원
- *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 (‘25) 178억원 → (‘26) 392억원

- **(바이오)** 맞춤형 진단 치료제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보, 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확대
 - *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 ('25) 1,283억원 → ('26) 1,398억원
- **(조선)** 쇄빙선,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미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지원사업 신규 편성
 -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 ('25) 1,192억원 → ('26) 1,944억원
 - * **신규**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 ('26) 66억원
 - * **신규**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26) 50억원
 - * **신규**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 : ('26) 77억원
- **(디스플레이·이차전지)** 생산성 개선을 위한 첨단공정 레이저 기술 개발 사업과 높은 성능의 하이망간 배터리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
 - * **신규** 배터리·디스플레이첨단제조공정용레이저장비핵심기술개발(R&D) : ('26) 56억원
 - * **신규** 하이망간리튬이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 ('26) 50억원

3. 통상 · 수출 대응 강화

('25) 1조 198억원 → ('26) 1조 2,030억원(+1,832억원, +18.0%)

-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 **(수출지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 긴급지원 바우처를 통해 피해분석, 물류비, 생산거점 이전 등 지원
 - * 무역보험기금출연 : ('25) 800억원 → ('26) 705억원
 - * 수출지원기반활용 : ('25) 914억원 → ('26) 1,811억원(긴급바우처 424억원 포함)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5) 3,293억원 → ('26) 3,414억원
- **(유통기업)** 한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K-소비재 역직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 * **신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26) 492억원
- **(이차보전)** 최근 고금리와 미국의 고율관세로 부담이 가중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업종 관련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설
 - * **신규**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 : ('26) 29억원

4. 공급망 강화

(‘25) 1조 7,879억원 → (‘26) 1조 9,319억원(+1,440억원, +8.1%)

- 각종 대외 리스크에도 견고한 공급망 유지를 위한 예산 편성
 - (국내생산·수입다변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신규투자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생산·수입 다변화 지원
 -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 (‘25) 45억원 → (‘26) 1,350억원
 - (재자원화) 2030년까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자원하는 사업 신규 추진
 - * 신규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 (‘26) 38억원

5. 5극3특 지역성장

(‘25) 7,563억원 → (‘26) 8,957억원(+1,394억원, +18.4%)

-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기업의 지방이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업당 300억원으로 확대
 - * 지역투자촉진(세종 계정 포함) : (‘25) 2,261억원 → (‘26) 2,564억원
 - (지역 R&D) 시·도 단위로 지원되던 기술개발 사업을 권역별 지원으로 개편하고, 광역 간 협력 R&D를 확대해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세종·제주 계정 포함) : (‘25) 431억원 → (‘26) 803억원
 - * 메가시티협력첨단산업육성지원 : (‘25) 40억원 → (‘26) 113억원
 - * 신규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 (‘26) 110억원
 - (산단) 산업단지 경쟁력 확충을 위해 AX 인프라 및 브랜드 산단 조성을 지원하고,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 신설
 - * 산업단지환경조성 : (‘25) 3,314억원 → (‘26) 4,099억원
 - (지역산업위기대응)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에 이차보전, 기술·사업화 등 지원 예산 확대
 - * 지역산업위기대응 : (‘25 추경) 52억원 → (‘26) 247억원
 - * 신규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 : (‘26) 14억원